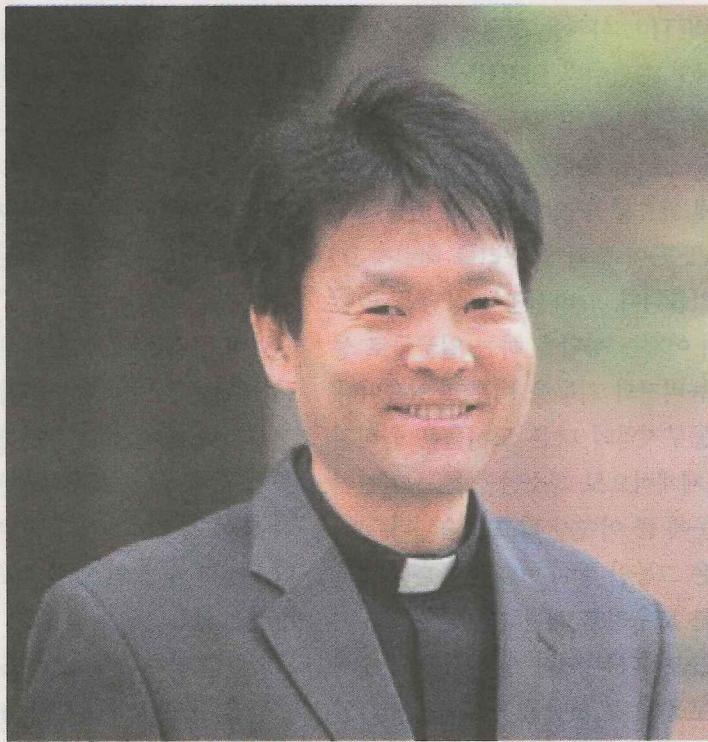


## 황창연 신부 초청 특별 강연회

5월30일-6월1일 필라 성당에서 열린다



“조그만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듯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을 잘 다루지 못하면 내 인생 전체를 화마 속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홀리 엔젤스 한인 천주교회(주임 이효언 펠릭스 신부)는 올해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아 황창연 베네딕도 신부(성 필립보 생태 마을 관장)을 초청하여 오는 5월 30일(금) 저녁 8시, 31일(토) 저녁 8시와 6월 1일(주일) 오후 12시, 3일간 특강을 마련한다.

일년에 약 300회 강연으로 전국과 해외에 행복한 메세지를 전하며 현재 부딪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아 청중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황 신부는 항상 3년간의 스케줄이 꽉 찰 정도로 그의 명성과 인기는 대단하다.

삶과 신앙을 맛깔스럽게 잘 버무려 행복한 밥상을 차리는 황 신부는 최근 KBS ‘아침 마당’ 목요 특강에서 ‘아직도 화가 나십니까’라는 주제로 그 열기를 더 했다.

인생 살면서 화만 잘 조절하면 평생 싸울 일이 없다. 부모는 잘 해준 것만 기억하고 자식은 섭섭한 것만 기억한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다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며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며 청중을 사로잡았다.

삶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 고집스럽게 간직해왔던 사고방식을 왜 바꿔야만 하는지 황 신부는

재치와 재미를 곁들여 명쾌한 답을 내놓는다. 그래서 청중은 끝까지 바짝 귀를 세우고 그의 말에 공감하며 맞장구를 친다.

비록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황 신부의 강의를 듣고 인생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체험을 했다고 말한다.

황 신부는 1965년 6월, 경남 함양 출생으로 수원 교구에서 1992년 1월 사제 서품을 받고 그 해 철산 성당 보좌 신부로 사제의 길로 들어섰다.

2004년부터 10년 째 강원도 평창 산골에서 천주교 수원 교구 환경 센터가 운영하는 생태마을 관장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피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평창 강가에 삶에 지친 이들이 몸과 마음을 눕히고 쉬어갈 수 있다. 이 곳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건강한 먹거리만을 제공하는 것도 자랑거리 중의 하나이다.

이 마을의 황 신부가 행복을 선물한다는 소문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고 있으며 신나는 이야기보따리 속에 삶의 체험까지 곁들여 모두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고 있는 환경 전문가 사제이다.

저서로는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 ‘사는 맛 사는 멋’ ‘북극 곰 어디로 가야 하나’가 있다.

(기사 제공 양경숙 미쉘)